

# 樂服과 舞服의 歷史的 變遷에 關한 研究

— 특히 樂學軌範과 各種 進宴儀軌를 中心으로 —

張 師 勛

〈서울대 음대 명예교수·예술원 정회원〉

.....《차 레》.....	
I. 머리말	4. 여기복식
II. 조선 시대의 연례의식 악무(樂舞)의 변천	IV. 악화례법 권 2에 소개된 관복
1. 조선 전기의 연례의식 악무	1. 아악진설도설의 관복
2. 조선 중기의 연례의식 악무	2. 속악진설도설의 관복
3. 조선 후기의 연례의식 악무	V. 각종 진연의례의 복식
III. 악화례법의 권 9에 소개된 관복	1. 악인의 복식
1. 관복도설	2. 정재 여령의 복식
2. 치용관복	3. 무동 복식
3. 무동관복	VI. 맺는말

## I. 머리말

한국의 복식(服飾)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깊이 있는 많은 논문이 발표되고, 또 복식 관계 저술(著述)이 많이 나와 이 분야의 연구 성과가 크게 진작(振作)되고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즉, 이여성(李如星)의 「조선복식고」<sup>(1)</sup>, 석주선(石宙善)의 「조선복식사」<sup>(2)</sup>, 김동욱(金東旭)의 「한국복식사연구」<sup>(3)</sup>, 유희경(柳喜卿)의 「한국복식사연구」<sup>(4)</sup>, 「조선시대 궁중복식」<sup>(5)</sup>, 이경자(李京子)의 「한국복식사」<sup>(6)</sup> 등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이 복식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분은 궁중 또

(1) 李如星; 「朝鮮服飾考」〈서울, 白揚堂, 1947〉.  
 (2) 石宙善; 「韓國服飾史」〈서울, 寶晉齋, 1971〉.  
 (3) 金東旭; 「韓國服飾史研究」〈서울, 亞細亞文化社, 1973〉.  
 (4) 柳喜卿; 「韓國服飾史研究」〈서울, 梨花女子大學校, 1975〉.  
 (5) 「朝鮮時代 宮中服飾」〈서울, 文化財管理局, 1981〉.  
 (6) 李京子; 「韓國服飾史」〈서울, 一志社, 1983〉.

는 일반 복식의 역사적인 변천이거나 이의 제도에 대한 연구가 중심되어 있고, 극히 한정된 악인(樂人)의 복식의 소개가 있을 뿐, 무복(舞服)에 있어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위의 저서 가운데서는 많은 문헌(文獻)에서 복식 관계 자료를 섭렵하고, 악무(樂舞)와 관계가 있는 「악학궤범(樂學軌範)」은 인용하면서도 조선 후기, 특히 순조·헌종·고종 시대의 각종 진작의궤(進爵儀軌), 진찬의궤(進饌儀軌), 진연의궤(進宴儀軌)는 참고 문헌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악학궤범」 권 8에는 당악정재 의물도설(唐樂呈才 儀物圖說)·정대업 정재 의물도설(定大業呈才 儀物圖說)·향악정재 악기도설(鄉樂呈才 樂器圖說)·득제소용(蠶祭所用), 권 9에는 관복도설(冠服圖說)·처용관복(處容冠服)·무동관복(舞童冠服)·여기복식(女妓服飾)으로 구분하여 그림과 함께 설명이 붙어 있는 점에서 소중하나, 처용관복(處容冠服)을 제외한 무동관복과 여기복식은 춤의 구분이 없이 일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점이 힘이다.

이에 비하여 순조 이후의 각종 진작·진찬·진연의궤에 소개된 무동(舞童)과 여기(女妓)복식은 그 제도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무동과 여기가 추는 춤 종류에 따라 착용(着用)되는 복식이 개별적으로 소개되어 있는 관계로 춤에 따른 복식의 구분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 후기의 각종 진작·진찬·진연의궤는 악복(樂服) 및 무복(舞服)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비교적 문헌적(文獻的)인 자료가 풍부한 조선 시대를 중심으로 먼저 연례의식(宴禮儀式) 악무(樂舞)의 변천과 그 특징을 살핀 다음, 이러한 연례(宴禮)에 사용되던 궁중 정재(宮中呈才)의 복식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악학궤범」과 조선 후기의 각종 진작·진찬·진연의궤에 근거하여 정리하기로 하겠고, 이러한 정리 작업은 현재 전승되고 있는 각종 정재(呈才)의 복식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현행 정재(呈才) 복식의 개선(改善)과 보완(補完)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 Ⅱ. 조선 시대의 연례의식(宴禮儀式) 악무(樂舞)의 변천

조선시대의 연례의식의 악무(樂舞)는 연출 종목과 그 악무가 갖는 의의(意義)에 따라 조선 초기·조선 중기·조선 후기의 삼기(三期)로 구분된다.

조선 초기는 태조로부터 성종 때 까지 1세기 동안이고, 조선 중기는 연산군으로부터

영조 때까지, 조선 후기는 정조 이후 순종까지로 한다.

### 1. 조선 전기의 연례의식 악무

이성계(李成桂)가 조선을 건국한 초기에는 아악서(雅樂署)·전악서(典樂署)·봉상시(奉常寺) 등 제향과 연향의 악무(樂舞)를 다스리는 관서(官署)는 두었으나, 어떠한 의식에 어떠한 악무를 연출하느냐 하는 구체적인데까지는 건국 초창에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제향 악무를 제외한 의식의 악무로 쓰기 위하여 그 종류와 절차를 정하고, 이것을 항식(恒式)으로 쓰도록 한 것은 태종 2년(1402) 6월의 일이다.

즉, 「태종실록」 권 3에 의하면, 예조(禮曹)와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 제조(提調)가 함께 의논하여 제정한 악무는 누가 누구를 위하여 베푸는 연례의식이냐에 따라서 일작(一爵)에서 십일작(十一爵) 또는 일작(一爵)에서 칠작(七爵) 등으로 구분하여 악무의 차례를 확정한 바 있다.<sup>(7)</sup>

그런데, 태조 2년(1392) 7월 이후 태종 2년(1402) 6월 사이에 새로 지은 악가(樂歌)는 정도전(鄭道傳)의 남씨가(納氏歌)·궁수분곡(窮獸奔曲)·정동방곡(靖東方曲)<sup>(8)</sup>과 문덕곡(文德曲)·무공(武工)·몽금척(夢金尺)·수보록(受寶錄)<sup>(9)</sup>, 하륜(河崙)이 지어 올린 근천정(勤天庭)·수명명(受明命)<sup>(10)</sup> 등의 신악(新樂)은 대부분 고려시대의 음악을 차용(參用)하고, 일부는 중국 주희(朱熹)의 《의례경전시해(儀禮經傳詩解)》의 남산유대(南山有臺)·녹명(鹿鳴) 등 곡의 가락을 따다 쓰고, 그 가사와 정재(呈才)는 새로 만든 것이다.<sup>(11)</sup>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조(禮曹)와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가 함께 의논하여 고려 이래로 전래하는 양부악(兩部樂), 즉, 당부(唐部: 左坊)와 향부(鄉部: 右坊) 가운데서 성음(聲音)이 조금 바른 것과 풍아지시(風雅之詩)를 참작하여 조희연향악을 제정하였는데<sup>(12)</sup>, 이러한 제도는 중종 5년(1510)까지 존속하였다.

태종 2년(1402)에 국가 의식에 쓰기 위하여 새로 제정한 악무는 국왕이 베푸는 잔치, 의

(7) 禮曹與儀禮詳定所 提調 同議 進樂調……臣等竊觀前朝 承三國之樂 因用其樂, 又從宋朝諸用教坊之樂 及其季世 又多哇浮之聲 朝會宴享 一切用之, 無足可觀 今當國初 不可因襲 臣等謹於兩部樂 取其聲音之稍正者 參以風雅之詩 定爲朝會宴享之樂 以及庶民通行之樂 且列于左 上鑑施行 以正聲音 以召和氣. 國王宴使臣樂……〈이하 생략〉〈太宗實錄 卷 3, 29b~30b 同 2年 6月 丁巳〉.

(8) 太祖實錄 卷 4, 2b~4a, 同 2年 7月 己巳條.

(9) 太祖實錄 卷 4, 12a, 同 2年 10月 己亥條.

(10) 領司平府事 河崙 進樂章二篇…觀天庭五章…受明命六章 上覽之…〈太宗實錄 卷 3, 31b, 同 2年 6月 辛酉〉.

(11) 納氏歌는 靑山別曲, 靖東方曲은 西京別曲, 文德曲은 鄉樂舞에 속하고 受寶錄은 鹿鳴, 觀天庭은 南山有臺, 受明命은 南山有臺의 音樂에 의한 것이고 窮獸奔曲은 未詳이다〈張師助: 韓國音樂史 pp. 93-98, 서울, 正音社, 1976〉.

(12) 太宗實錄 卷 3, 29b~30b, 同 2年 6月 丁巳條.

정부에서 주관하는 잔치, 일품(一品)이하 대부(大夫)의 공사연(公私宴), 서인(庶人)이 부모형제를 위하여 베푸는 잔치의 3가지로 대별하여 13가지의 제도가 있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도 각각 다른 특징과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1) 국왕이 베푸는 잔치의 악무

초연(初宴)·중연(中宴)·파연(罷宴)으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초연 : 태조 건국의 당연성을 내용으로 한 수보록(受寶籙)·몽금척(夢金尺)의 신악(新樂)을 연행한다.
- ② 중연 : 고려 때 부터 전래하는 당악정제인 오양선(五羊仙)·포구락(拋毬樂)·연화대(蓮花臺) 등과 향악 정제인 무고(舞鼓)를 춘다.
- ③ 파연 : 태조의 문덕(文德)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된 신악(新樂) 문덕곡(文德曲)을 반드시 연행하므로써 연향을 마친다.

2) 의정부에서 주관하여 베푸는 잔치의 악무

- ① 초연 : 녹명(鹿鳴)·황황자화(皇皇者華) 등 주희(朱熹)의 《의례경전시해》에 전하는 곡을 노래 부른다.
- ② 중연 : 고려 전래의 당악 정제는 연화대(蓮花臺)에 국한하고, 향악 정제인 무고(舞鼓)와 아박(牙拍)은 배지 않고 사용하였다.
- ③ 파연 : 태조의 문덕(文德)을 찬미한 문덕곡(文德曲)으로 파연을 장식한다.

3) 일품 이하 대부와 서인(庶人)이 베푸는 잔치의 악무

대부(大夫)의 잔치에는 녹명(鹿鳴)·관저(關雎)·칠월편(七月篇) 등을 노래하되, 금강성(金剛城)·자하동(紫霞洞) 등 전통적인 가락에 얽어 노래하고, 그 사이 사이에 효(孝)와 정절(貞節)에 관계되는 오관산(五冠山)·방등산(方等山) 외에도 서인의 생활 환경에 맞는 권농가(勸農歌)를 부르도록 하였다.

대부(大夫)나 서인의 잔치에는 정제가 빠져 있는 점이 국가적인 공식 행사의 내용과 다르다.

그러나, 세종 14년(1432) 9월 이후로는 아악의 정리와 함께 변동이 있었고, 파연을 장식하던 문덕곡(文德曲)은 태조가 위화도(威化島)에서 회군(回軍)한 일을 찬미하는 내용인 정동방곡(靖東方曲)으로 대치(代置)된 점이 주목된다.<sup>(13)</sup>

이 정동방곡은 고려시대의 서경별곡의 가락에 의하여 노래 부르고, 4인이 춤을 추며, 제기(諸妓)가 노래 부르는데, 이를 속칭 파연무(罷宴舞)라고도 하였다.<sup>(14)</sup>

(13) 世宗實錄 卷 57, 36a, 同 14年 9月 甲戌條.  
 (14) 樂學軌範 卷 2, 21b~22b 時用賀禮及宴享樂條.

이와같이 문덕곡과 바꾸어 쓴 정동방곡은 성종 때까지 시용하례 급 연향악(時用賀禮及宴享樂)으로 사용되었음을 《악학궤범》 권 2에 의하여 알 수 있다.

## 2. 조선 중기의 연례의식 악무

조선 초기에 새로 창작되거나 재연(再演)된 당악 정재에는 몽금척(夢金尺：金尺)·수보록(受寶籙)·근천정(觀天庭)·수명명(受明命)·하황은(荷皇恩)·하성조(賀聖朝)·성택(聖澤)·육화대(六花隊)·곡파(曲破)의 9가지가 있고<sup>(15)</sup>, 향악 정재에는 보태평(保太平)·정대업(定大業)·봉래의(鳳來儀)·향발무(響鉢舞)·학무(鶴舞)·학연화대처용무합설(鶴蓮花臺處容舞合設)·교방가요(教坊歌謠)·문덕곡(文德曲) 등이 있다.<sup>(16)</sup>

한편, 조선 중기에 등장하는 정재로는 광수무(廣袖舞)·침수무(尖袖舞)·공막무(公莫舞)·검기무(劍器舞) 등의 이름이 보인다.

따라서 조선 중기의 악무는 고려 때부터 전승하는 악무, 조선 전기의 악무 및 조선 중기의 악무 중에서 선택하여 썼다.

특히 조선 중기의 연향 의식 악무에 있어서 조선 전기와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은 초연과 파연 악무라고 할 수 있다.

태조 건국으로부터 성종 때까지 1세기 동안은 태조의 등극(登極)은 천명(天命)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으로 된 몽금척(夢金尺)과 수보록(受寶籙), 태조의 문덕과 무공을 찬미한 내용의 문덕곡(文德曲)과 정동방곡(靖東方曲)이 초연과 파연을 장식한데 대하여 조선 중기에는 건국의 당위성(當爲性)과 태조의 업적을 찬미하는 정신이 흐려지고 있다.

조선 중기의 연례의식 중 파연(罷宴)에서 문덕곡(文德曲)과 정동방곡(靖東方曲) 대신 처용무(處容舞)가 새로 등장하는 점이 달라진 점이다.

즉, 처용무는 성종 때까지는 주로 나례(儼禮) 때 벽사(辟邪) 의식무(儀式舞)로서 일익(一翼)을 담당하였는데, 조선 중기에는 파연(罷宴)을 장식하는 오락적이고도 중요한 춤으로서 자리를 굳치게 된 것이다.

가장 전통이 오래되고 벽사(辟邪) 의식무(儀式舞)의 구실을 하던 처용무는 《악학궤범》의 후도(後度) 처용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락적인 또는 감상을 위한 춤으로서의 구실까지 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sup>(17)</sup>

조선 중기 이후로 처용무가 파연을 장식하게 된 까닭은 처용무의 오랜 전통성, 호한한

(15) 樂學軌範 卷 4, 1a~23a.

(16) 樂學軌範 卷 5, 1a~18a.

(17) 樂學軌範 卷 5, 11b~16a 鶴蓮花臺處容舞合設條.

내용과 더불어 성종 이래로 나례(儼禮) 때 오락적으로 연출되던 후도(後度)의 처용무가 차츰 파연(罷宴)의 춤으로 정착된 것이라 하겠다.

### 3. 조선 후기의 연례의식 악무

조선 후기에는 궁중 정재(宮中呈才)의 창작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효심이 지극한 익종(翼宗, 追尊)이 부왕(父王)인 순조대왕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새로 창작한 정재만도 근 30종에 이른다.

순조 28년(1828), 29년(1829) 이후로는 일찌기 보지 못하던 정재(呈才)의 현란기(絢爛期)라고 할 수 있다.

순조 무자(戊子, 1828) 《진작의궤(進爵儀軌)》와 순조 기축(己丑, 1829) 《진찬의궤(進饌儀軌)》에 의하면 당시에 창작된 정재에 관한 귀중한 기록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고, 그 무보(舞譜)는 고종 시절의 많은 《정재무도훈기(呈才舞圖笏記)》에 전한다.

순조 무자(1828) 《진작의궤》, 순조 기축(1829) 《진찬의궤》, 헌종 무신(1848) 《진찬의궤》 고종 무진(1868) · 동 정축(1877) 《진찬의궤》 등에 의하여 조선 후기에 새로 창작된 각종 정재의 전모를 볼 수 있다.

조선 후기에 창작된 정재 가운데에는 고려 이래의 당악 정재의 한 양식인 죽간자(竹竿子)와 용선(龍扇) · 봉선(鳳扇) · 작선(雀扇) · 미선(尾扇) · 정절(旌節) 등의 의장(儀仗)의 형식을 빌린 장생보연지무(長生寶宴之舞) · 연백복지무(演白福之舞) · 제수창(帝壽昌) · 최화무(催花舞)의 4종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당악 정재도 외형적인 형식만 빌렸을 뿐, 정재의 내용과 춤사위는 전통적인 향악 정재(鄉樂呈才)의 그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순조 무자년(1828) 연경당(演慶堂) 진작(進爵) 때에 소개된 악무는 다음과 같다.<sup>(18)</sup>

- ① 망선문(望仙門) · 경풍도(慶豊圖) · 헌선도(獻仙桃) · 춘대옥촉(春臺玉燭) · 보상무(寶相舞) · 향령무(響鈴舞) · 영지무(影池舞) · 박접무(撲蝶舞) · 연화대(蓮花臺) · 침향춘(沉香春) · 춘앵전(春鶯囀) · 춘광호(春光好) · 첩승무(疊勝舞) · 최화무(催花舞) · 가인전목단(佳人剪牧丹) · 무산향(舞山香)
- ② 망선문 · 경풍도 · 만수무(萬壽舞) · 헌천화(獻天花) · 춘대옥촉 · 보상무 · 향령무 · 영지무 · 박접무 · 침향춘 · 연화대무 · 춘앵전 · 춘광호 · 첩승무 · 최화무 · 가인전목단 · 무산향 · 고구려무(高句麗舞) · 풍악무 · 부고 · 향발무 · 아박 · 포구락

이중에서 ×표를 한 춤 이외에는 모두 당시에 새로 창작된 정재이고, 순조 기축년(1829) 자경전(慈慶殿) 진찬 때의 악무 중 장생보연지무(長生寶宴之舞)와 선유락(船遊樂), 순조

(18) 純祖 戊子 進爵儀軌 附編 5a~7a.

기축년(1829) 자경전 익일(翌日) 진찬 때의 악무 중 연백복지무(演百福之舞)·제수창(帝壽昌)·사선무(四仙舞), 현종 무신년(1848) 통명전(通明殿) 진찬 때 악무 중 관동무(關東舞)도 새로 창작된 정재이다.

그런데, 순조 무자년(1828) 이후 고종 시대에 이르는 동안 두드러지게 변화된 점은 조선 중기에 파연(罷宴)의 춤으로 장식하던 처용무(處容舞)의 상연이 차츰 적어지고, 새로 창작된 정재 중에서 선택하여 파연무(罷宴舞)로 쓰게 된 점이다.

다시 말하면, 순조 무자년(1828)까지 파연무(罷宴舞)로 쓰다가 순조 기축년(1829)부터는 전래의 무고·집기무, 새로 창작된 훈앵천·선유락 등을 파연무로 대치하여 썼는데, 그 중에서도 선유락(船遊樂)이 가장 많이 등장되었다.

현종 때에는 그 때 창작된 관동무(關東舞)를 파연무로 쓴 예도 있다.

특히, 고종 무진년(1868) 이후로는 그 구성이 호화롭고, 50명 내외의 많은 무원(舞員)이 동원되는 선유락으로써 파연(罷宴)을 장식함에 이른다.

조선조의 정재는 초기·중기·후기의 삼기(三期)로 나뉘어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면서 변천해 왔음을 알 수 있다.

### Ⅲ. 악학궤범의 권9에 소개된 관복

《악학궤범》 권 8에는 의물(儀物)과 정재(呈才)에 소용되는 악기를 중심으로 도설(圖說)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악인(樂人)의 관복(冠服), 처용무의 관복, 무동(舞童)의 관복 및 여기(女妓)의 복식(服飾)을 다룬 제 9권의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 1. 관복도설(冠服圖說)<sup>(19)</sup>

관복도설에 다룬 범위는 정재(呈才)의 복식과는 관계가 없고, 주로 아속악(雅俗樂)의 문무(文舞)·무무(武舞)·의물(儀物)의 공인(工人) 및 악공(樂工), 아악 등가(登歌)의 도창악사(導唱樂師), 우방 악사(右坊樂師), 문소전(文昭殿)·연은전(延恩殿)·소경전(昭敬殿)의 공인(工人), 가동(歌童), 관현맹인(管絃盲人), 세종 회례연(會禮宴)에 사용되던 아악의 문무와 무무 공인(工人)의 관복을 다루고 있다.

#### (1) 복두(撲頭)

우방악사(右坊樂師), 악공(樂工), 아악 등가(登歌), 도창악사(導唱樂師)가 쓴다.

복두(撲頭)는 종이로 배접하여 만들고, 안은 세포(細布)를 발라 검은 칠을 하고, 뿔이

(19) Ⅲ의 1항 관복도설의 (1)번부터 (30)번까지는 《樂學軌範》 권 9, 1a~11a 참조.

있다. 악공이 쓰는 것은 앞과 뒤 그리고 두 뺨에 채화(彩花)를 그린다.

(2) 개적(介幘)

아속악(雅俗樂) 차비(差備) 공인이 쓴다.

개적(介幘)은 송나라 제도로서 가죽으로 만드는데, 그 장식은 검은 칠을 한다. 지금 제도는 종이로 배접하여 만든다. 가[邊兒]는 칠사를 쓰고 안은 세포(細布)를 바르고 검은 칠을 한다. 자황(雌黃)으로 섬세한 그림을 그리고, 푸른 명주 끈을 단다.

(3) 진현관(進賢冠)

아속악(雅俗樂) 문무 및 독(黻)을 드는 악공이 쓴다.

진현관의 만드는 법은 개적관과 같고, 다만 체제가 다를 뿐이다.

(4) 피변(皮弁)

아악의 무무(武舞)와 정(旌), 속악의 무무와 의물을 드는 공인이 쓴다.

피변의 옛 제도는 칠한 형점으로 겹질을 만든다.

지금 제도는 종이로 배접하여 만들고, 안은 세포(細布)를 발라 검은 칠을 한다.

겉은 모피(毛皮)의 형상을 그리어 얼룩 사슴[獐] 가죽과 같이 하고, 좌우에는 구리로 만든 운월아(雲月兒)를 붙이어 푸른 명주 끈을 단다.

(5) 무변(武弁)

모추(母追)라고 이름하기도 한다. 아악의 순(鈸)·탁(鐺)·요(鏡)·탁(鐸)·응(應)·아(雅)·상(相)·독(贖)을 드는 공인이 쓴다.

무변(武弁)은 송나라 제도로서 칠포(漆布)로써 겹질을 삼고, 검은 빛[緇]으로써 그 위를 누빈다.

「원사」에는 가죽으로 만들고, 머리를 동이는 수건[抹額]을 더 한다고 하였다.

지금은 종이로 배접하여 만들고, 안은 세포(細布)를 발라 검은 칠을 한다. 푸른 명주 끈을 달고 붉은 수건[紅抹額]을 맨다.

(6) 오관(烏冠)

문소전(文昭殿) 차비(差備) 공인이 쓴다. 연은전(延恩殿)·소경전(昭敬殿)도 이와 같다. 오관(烏冠)은 예전에는 칠포(漆布)로써 겹질을 만들어 검은 칠을 하고, 말액(抹額)을 더 하고, 채색한 비단꽃을 꽂는다.

지금은 종이로 배접하여 만들고, 안은 세포(細布)를 발라 검은 칠을 한다. 앞 면은 다만 잎을 그리고, 따로 붉은 모로 만든 꽃을 화공(花孔)에 꽂고, 뒤는 꽃과 잎을 그리고, 붉은 명주 수건을 맨다.



(7) 초립(草笠)

가동(歌童)이 용복(戎服)하고 쓴다.

갓[笠]은 주황초(朱黃草)로 만들고, 끈이 있다.

(8) 두건(頭巾)

녹주(綠紬)는 사신(使臣)·동궁연(東宮宴) 이하 여러 연례, 예조의 왜야인연(倭·野人宴)에는 다만 음악만 내리는데, 악공 및 관현맹인(管絃盲人)이 쓴다. 자주(紫紬)는 가동(歌童)의 예복으로 쓴다.

두건은 녹주(綠紬)로써 누벼 만들고 안은 생포(生布)를 사용한다. (紫紬 두건 제도도 같다)

(9) 방심곡령(方心曲領)

아악 등가의 도창악사(導唱樂師)가 쓴다.

방심곡령은 흰 명주로 만든다.

(10) 녹초삼(綠綃衫)

녹초삼(綠綃衫)은 우방악사가 입고, 붉은 공복(公服)은 아악 등가 도창악사가 입는다.

삼(衫)은 녹색 비단으로 만든다. 홍초삼(紅綃衫)의 제도도 같다.

홍초삼은, 즉 붉은 공복(公服)이다.

(11) 비란삼(緋鸞衫)

아속악(雅俗樂)의 차비(差備) 및 순(鎗)·탁(鐃)·요(鏡)·탁(鐃)·응(應)·아(雅)·상(相)·독(牘)·정(旌)을 든 공인이 입는다.

검은 명주는 아악의 문무·무무 및 독(纛)을 드는 공인이 입는다.

난삼(鸞衫)은 붉은 명주로 만든다. 앞 뒷면과 좌우 어깨에 난봉(鸞鳳)을 그려 흥배(胛背)의 형상과 같이한다. (검은 명주의 삼(衫)과 악공이 조하(朝賀) 때 입는 붉은 명주의 삼(衫)의 제도와 같다. 악공이 입는 삼(衫)은 다만 흥배에 작은 꽃을 그린다.)

(12) 홍록주의(紅綠紬衣)

문소전(文昭殿) 차비(差備) 공인이 입는다. 연은전(延恩殿)·소경전(昭敬殿)도 이와 같다.

옷[衣]은 홍록주(紅綠紬)로 만들고, 흥배(胛背)에 목단을 그린다. (녹의(綠衣)는 붉은 흥배, 홍의(紅衣)는 푸른 흥배)

(13) 백주중단(白紬中單)

아악 등가의 도창악사(導唱樂師), 문무와 무무의 차비(差備), 순(鎗)·탁(鐃)·요(鏡)·탁

(鐸)·응(應)·아(雅)·상(相)·독(牘)·정(旌)·독(纛)의 공인이 입는다.

중단(中單)은 다듬은 흰 명주로 만들고, 검은 명주로 가장자리를 한다.

(14) 홍면비구(紅綿臂鞵)

아악의 순(鐸)·탁(鐃)·요(鏡)·탁(鐸)·응(應)·아(雅)·상(相)·독(牘) 등을 드는 공인이 착용한다.

비구(臂鞵)는 다듬은 흰 명주로 만들고, 비단 무늬를 그린다.

겉은 붉은 명주를 쓰고, 안은 양모질(羊毛氈)을 붙이고, 네 귀퉁이에는 붉은 명주 끈이 있다.

(15) 비백대대(緋白大帶)

아악 등가의 도창악사가 착용한다.

대대(大帶)는 다듬은 홍백주(紅白紬)를 합하여 꿰맨다.

(16) 남주의(藍周衣)

속악의 문무와 무무 및 의물(儀物)을 드는 공인이 입는다.

옷은 남색 명주로 만든다.

(17) 백주고(白紬袴)

아악 등가의 도창악사, 문무와 무무 차비(差備), 순(鐸)·탁(鐃)·요(鏡)·탁(鐸)·응(應)·아(雅)·상(相)·독(牘)·정(旌)·독(纛)을 드는 공인이 입는다.

바지[袴]는 다듬은 흰 명주로 만들고, 두 다리에 잇대 버선이 있다.

(18) 적상(赤裳)

속악의 문무와 무무 및 의물을 드는 공인이 입는다.

치마[裳]는 붉은 명주로 만들고, 검은 명주로 가[緣]를 한다.

(19) 흑단령(黑團領)

사신, 동궁연(東宮宴) 이하 각 연향의 공인이 입는다.

압두록(鴨頭緣)은 관현맹인(管絃盲人)이 입는다.

녹색 명주는 가동(歌童)이 예복(禮服)으로 입는다.

단령(團領)은 검은 면포(綿布)로 만든다.

압두록(鴨頭緣) 면포(綿布) 단령과 녹주(綠紬) 단령의 제도도 이와 같다.

(20) 단첩리(單帖裏)

가동(歌童)이 용복(戎服)으로 입는다.

단첩리는 토홍(土紅)의 붉은 면포(綿布)로 만든다.

(21) 백주말대(白袖抹帶)

아속악(雅俗樂)의 각 차비(差備) 공인과 순(錄)·탁(鑼)·요(鏡)·탁(鐸)·응(應)·아(雅)·상(相)·독(曷)의 공인이 입는다. 적말대(赤抹帶)는 속악의 문무와 무무 및 의물을 드는 공인이 착용한다.

(22) 금동록혁대(金銅綠革帶)

아악의 문무·무무와 정(旌)·독(纛)을 드는 공인 및 공연(公宴)의 무동·가면무동이 띈다.

홍정(紅靛)은 회례연(會禮宴) 무동 및 관현맹인이 띈다.

녹혁대(綠革帶)는 황동(黃銅)으로 갈고리[鉤]를 한다. 홍정대(紅靛帶)의 제도도 같다.

(23) 오정대(烏靛帶)

우방악사의 공인이 띈다.

오정대(烏靛帶)는 나무로 갈고리를 하고 검은 칠을 한다.

(24) 광다회대(廣多繪帶)

가동(歌童)의 예복(禮服)에 띈다.

(25) 백포말(白布襪)

아악 등가(登歌)의 도창악사, 각 차비(差備)의 공인과 속악인 종묘·영령전(永寧殿)의 문무·무무 및 의물을 드는 공인과 처용(處容)이 신는다.

버선은 백포(白布)로 만들고, 속은 생포(生布)를 사용한다.

(26) 흑피화(黑皮靴)

우방악사와 가동(歌童)이 신는다.

화(靴)는 검은 가죽으로 만든다.

(27) 오피리(烏皮履)

아악 등가(登歌)의 도창악사와 각 차비(差備) 공인 및 속악인 종묘·영령전의 문무·무무와 의물을 드는 공인이 신는다.

리(履)는 검은 가죽으로 만들고 끈이 있다.

(28) 황화갑(黃畫甲)

세종조 회례연(會禮宴)에 아악을 쓸 때 무무(武舞) 공인이 착용한다.

갑옷은 다듬은 노른 비단으로 하고, 채색을 사용하여 갑형(甲形)에 의하여 그림을 그린다.

두 겨드랑이에는 운문(雲紋)을 그리고, 안은 붉은 명주를 쓰고, 가슴에는 자주(紫紬)의

옷고리[紐子] 다섯개가 있다.

(29) 표문대구고(豹文大口袴)

고[袴]는 경의(脛衣)이다.

세종조 회례연에 아악을 쓸 때 무무(武舞) 공인이 입었다.

바지[袴]는 다듬은 흰 명주로 만들고, 무릎 아래는 표피(豹皮)의 반문(班紋)을 그리고, 아래 끝에는 버선을 잇는다.

(30) 기량대(起梁帶)

세종조 회례연에 아악을 쓸 때 무무(武舞) 공인이 띠다.

머는 검은 가죽[鞞]을 쓰고, 양쪽 가[邊]와 중간 오뚝 도드라진 쌍량(雙梁)의 앞 면과 한쪽 끝에는 황동(黃銅)의 갈고리[鉤]를 둔다.

2. 처용관복(處容冠服)<sup>(20)</sup>

(1) 사모(紗帽)

가면 및 목단꽃·복숭아·열매와 가지·귀고리도 함께 붙인다.

사모는 대[竹]로 망(網)을 만들어 만든다.

보통 제도는 종이를 발라 채색을 써서 꽃을 그린다.

가면은 저포(苧布)로 만들고, 혹은 칠포(漆布)로 겹질을 만들고 채색을 한다. 두 귀에는 주석 고리와 납주(鐵珠)를 건다.

사모 위에 꽃은 목단꽃과 복숭아 가지는 세저포(細苧布)를 쓰고, 복숭아 열매는 나무로 다듬어서 만든다.

(2) 의(衣)

옷(衣)은 오방(五方)의 빛깔에 따라서 청(靑)·황(黃)·홍(紅)·백(白)·흑단(黑段)으로 한다.

앞은 짧고 뒤는 길며, 목[領]은 둥글고 넓으며, 가슴은 네모지고 길다.

앞과 뒤 영 소매에는 만화(蔓花)를 그린다.

동방은 청의(靑衣, 藍色을 쓴다)로 목[領]과 가슴은 홍금선(紅金線)을 쓰고, 가슴 양쪽 가에는 선을 두르는데 녹단(綠段)(西·北·中의 領과 胸과 胸緣도 같다)을 쓰고, 소매 끝은 잇대어 흑단(黑段)과 황초(黃綃)(西·南의 袖 끝도 같다)를 꿰매고, 안은 홍초(紅綃)(西·北의 안도 같다)를 쓴다.

서방은 백의(白衣), 남방은 홍의(紅衣)로 목[領]과 가슴은 녹금선(綠金線)을 쓰고, 흥연(胸緣)은 남단(藍段)을 쓰고 안은 남초(藍綃)(中의 안도 같다)를 쓴다.

(20) Ⅲ의 2항 처용관복의 (1)번부터 (8)번까지는 《樂學軌範》卷 9, 11a~14b 참조.

북방은 흑의(黑衣)로 소매 끝은 잇대어 녹색(綠段)과 황초(黃綃)를 꿰맨다.

중앙은 황의(黃衣)로 소매 끝은 잇대어 흑단(黑段)과 홍초(紅綃)를 꿰맨다.

(3) 천의(天衣)

천의(天衣)는 녹색(綠段)을 쓰고, 만화(蔓花)를 그리며, 안은 붉은 명주를 쓴다(五方이 모, 두 같다).

(4) 길경(吉慶)

길경의 길과 안은 모두 홍초(紅綃)를 쓰고, 두 끝은 잇대어 녹색(綠段)으로 덧붙인다(東·西·北·中은 같고, 南은 흑초(黑綃)를 쓴다).

(5) 상(裳)

치마는 황초(黃綃)를 쓰고, 치마 가운데는 녹색(綠段)을 써서 휘장[幟]을 하고, 휘장 밑은 홍금선(紅金線)과 황초(黃綃)로써 홍록단(紅綠段)을 연보(連補)하고, 홍초(紅綃) 끈이 둘이 있는데, 그 끝에는 녹색(綠段)을 잇댄다(五方도 모, 두 같다).

(6) 군(裙)

바지[裙]는 동(東)과 북(北)은 홍단(紅段)을 쓰고 방술(方膝)은 흑단(黑段)을 쓰는데, 녹색(綠段)으로 가장자리[緣]를 한다. 서(西)와 남(南)은 흑단(黑段)을 쓰고, 방술(方膝)은 홍단(紅段)을 쓰는데, 녹색(綠段)으로 가장자리를 한다.

중앙은 남단(藍段)을 쓰고, 방술(方膝)은 홍단(紅段)을 쓰는데, 녹색(綠段)으로 가장자리[緣]를 한다.

(7) 한삼(汗衫)

한삼은 다듬은 흰 비단으로 만든다(五方도 모, 두 같다).

(8) 대(帶)와혜(鞋)

대[帶]는 붉은 가죽[紅鞞]을 쓰고 나무로 갈고리를 하고 여지(荔枝)를 새겨 금종이를 붙인다(五方도 모, 두 같다).

신[鞋]은 흰 가죽으로 만들고 끈이 있다(五方도 모, 두 같다).

3. 무등관복(舞童冠服)<sup>(21)</sup>

(1) 동연화관(銅蓮花冠)

가면과 함께 붙인다. 처용(處容)에 쓴다.

관(冠)은 동철(銅鐵)을 얹게 하여 만든다.

위는 연꽃으로 덮고, 아래는 연잎을 늘어뜨린다. 가면 칠포(漆布)로 겹질을 하고 모두 채색한다.

(21) Ⅲ의 3항 무등관복은 《樂學軌範》卷 9, 15a~17b 參照.

(2) 회례연 때의 부용관(芙蓉冠)

세종조에 쓰던 무동(舞童)을 없앤 뒤에 부용관은 태워 쓰지 않았고, 경오년(庚午年)에 무동을 부활한 뒤에 다시 이것을 썼다.

관(冠)은 종이를 배접하여 만든다.

안은 칠포(漆布), 겉면은 금은 각색의 채색을 써서 부용을 그리고, 좌우에는 채색한 구슬의 영락(纓落)이 있다. 또 자색의 비단 끈을 달아 자황(紫黃)의 도다익(都多益)을 찍는다.

(3) 공연(公宴) 때의 부용관

경오년(庚午年, 1480) 무동을 부활시킨 뒤 공연(公宴) 때 썼다.

관(冠)은 종이를 배접하여 만든다.

안은 칠포(漆布), 겉면은 금은 각색의 채색을 써서 부용을 그리고 목단꽃을 꽃는다. 좌우에는 채색한 영락(纓落)이 있다.

또, 분홍 비단의 끈을 달아 자황(紫黃)의 도다익(都多益)을 찍는다.

회례연의 체제와 각각 다르다.

(4) 화(靴)

신[靴]은 검은 곰 가죽으로 만들고 청자사피(靑紫斜皮)를 써서 꽃을 도드라지게 하고, 가장자리[緣]는 청사피(靑斜皮)를 쓴다.

(5) 의(衣)

세종조에 쓰던 중단상(中單裳)과 같다.

경오년(1450) 부활한 무동의 옷[衣]은 각색 비단으로 만들고, 활짝 핀 절화(折花) 무늬를 그린다.

안은 붉은 명주를 쓰고, 여름철에 검은 삼베로 만든다.

옷[衣]은 오색단(五色段)으로 한다(黃緣紫藍桃紅). 안은 붉은 비단을 쓰고, 흉배(胸背)는 남색 금선(金線)을 써서 만화(蔓花) 혹은 운문(雲紋)을 짜서 만든다.

안은 흰 비단을 쓰고, 가장자리[邊兒]는 남색 실로 꿰매어 장식한다.

(6) 중단(中單)

경오년(1450) 부활한 무동의 중단(中單)은 흰 명주로 만들고, 가장자리[緣]는 검은 명주로 하였다.

여름철에는 흰 저포(苧布)로 하고 가장자리는 검은 저포(苧布)를 쓴다.

중단(中單)은 다듬은 흰 비단으로 만들고, 깃[襟]은 오색단(五色段)을 쓴다(黃緣紫藍桃紅). 가장자리는 검은 비단을 쓴다.

(7) 상(裳)

경오년(1450) 부활한 무동의 치마는 붉은 비단으로 만들고, 활짝 핀 절화(折花) 무늬를 그린다.

안은 붉은 비단을 쓰고, 가장자리[緣]는 검은 비단을 쓰며, 자황(紫黃)의 도다익(都多益)을 찍는다.

여름철에는 흰 저포(苧布)로 하고 가장자리는 검은 저포(苧布)를 쓴다.

치마[裳]는 붉은 비단으로 만들고 가장자리는 검은 비단으로 하며, 안은 붉은 비단을 쓴다.

(8) 방의(防衣)

독제(蠶祭)의 궁시무(弓矢舞)와 간척무(干戚舞)의 공인이 입는다.

방의(防衣)는 붉은 면포(綿布)와 푸른 면포로 만들고, 안은 황포(黃布)를 쓴다.

(9) 전대(纏帶)

독제(蠶祭)의 창검(槍劍)·궁시(弓矢)의 간척무(干戚舞)의 공인이 띠다.

전대는 흰 모시로 만든다.

(10) 회렴(回斂)

독제(蠶祭)의 창검(槍劍)·궁시(弓矢)의 간척무(干戚舞)의 공인이 착용한다.

회렴(回斂)은 검은 면포(綿布)로 거죽을 하고, 흰 천으로 안을 한다.

(11) 운혜(纛鞋)

독제(蠶)의 창검·궁시의 간척무(干戚舞)의 공인이 신는다.

신[鞋]은 흰 천으로 버선을 만들고, 아래 안쪽은 푸른 면포(綿布)로 한다. 앞과 뒤 양편 가장자리는 붉은 면포로 붙이며 신[履]은 가죽을 쓰고 끈이 있다.

4. 여기복식(女妓服飾)<sup>(22)</sup>

(1) 잠(簪)

금 혹은 도금(鍍金)을 쓰고, 진주 및 잡색 나주(刺珠)로 장식한다. 혹은 가주(假珠)를 쓰기도 한다.

(2) 유소(流蘇)

속칭 수사지(首沙只)라고도 한다.

유소(流蘇)는 자색 비단으로 하고, 금빛 꽃 무늬를 찍는데, 모두 여덟 가닥이다.

(3) 차(釵)

비녀[釵]는 금 혹은 도금을 쓰고, 진주로서 장식한다. 엽발기(斂髮妓)의 머리 장식이다.

(22) Ⅲ의 4항 여기복식은 《樂學軌範》卷 9, 18a~20b 參照.

(4) 대요(帶腰)와 수화(首花)

① 대요(帶腰) : 대요는 금 혹은 도금을 써서 꽃을 아홉개 또는 일곱개를 쓴다. 진주 및 잡색 나주(刺珠)로써 장식하고, 가주(假珠)를 쓰기도 하며 흑단(黑段)으로 바른다. 피발기(被髮妓)의 머리 장식이다.

② 수화(首花) : 꽃과 잎은 세저포(細苧布)를 쓰고, 봉접(蜂蝶)은 채색한 실을 사용한다.

(5) 단의(丹衣)

단의(丹衣)는 홍라(紅羅) 혹은 엷은 비단으로 만든다.

안은 남색 비단을 쓰고, 혹은 흰 비단을 쓰기도 한다.

소매 밖은 백초(白綃)와 남단(藍段), 양 옆구리는 남단(藍段)과 백초(白綃)를 잇대어 꿰맨다.

(6) 상(裳)

속칭 보로(甫老)라고 한다.

치마[裳]는 홍단(紅段)으로 만든다. 겉으로 늘어뜨린 잡색단(雜色段) 끈 여덟개에는 금빛 꽃 무늬를 적는다.

(7) 대(帶)

띠[帶]는 홍초(帶綃)로 만들고, 금빛 꽃 무늬를 적는다.

(8) 흑장삼(黑長衫)

흑단을 잇대어 꿰매어 만든다.

소매 끝은 남초(藍綃)를 쓴다.

(9) 혜아(鞋兒)

무늬 있는 홍단(紅段)으로 만든다.

(10) 말근(襪裙)

백라(白羅)와 백초(白綃)로 만든다.

(11) 남적고리(藍赤古里)

남색 비단으로 만들고, 안은 흰 명주를 쓴다.

#### IV. 악학궤범 권 2에 소개된 관복

「악학궤범」 권 2에 소개된 관복(冠服)을 조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1. 아악진설도설(雅樂陳設圖說)의 관복<sup>(23)</sup>

(23) 《樂學軌範》 卷 2, 1a~5b.



1) 「오례의(五禮儀)」 등가(登歌) · 헌가(軒架)의 관복

(1) 「오례의」 등가

① 악생(樂生, 62인)

개적(介幘) · 비란삼(緋鸞衫) · 백주중단(白紬中單) · 백주고(白紬袴) · 금동혁대(金銅革帶) · 백포말(白布襪) · 오피리(烏皮履).

② 악사(樂師)

복두(幘頭) · 강공복(絳公服) · 금동혁대(金銅革帶) · 비백대대(緋白大帶) · 백포말(白布襪) · 오피리(烏皮履).

(2) 「오례의」 헌가

① 악생(樂生, 121인)

「오례의」 등가 악생의 관복과 같다.

2) 시용(時用) 등가와 헌가의 관복

시용(時用) 등가와 헌가는 성종 당시를 말한다.

(1) 시용 등가(時用登歌)

① 악생(樂生, 62인)

개적(介幘) · 비란삼(緋鸞衫) · 흑연백주중단(黑緣白紬中單) · 백주고(白紬袴) · 백주대(白紬帶) · 백포말(白布襪) · 오피리(烏皮履).

② 도창(導唱)

복두(幘頭) · 강공복(絳公服) · 백주중단(白紬中單) · 비백대대(緋白大帶) · 방심곡령(方心曲領) · 백포말(白布襪) · 오피리(烏皮履).

(2) 시용 헌가(時用軒架)

① 악생(124인)

「오례의」 헌가 악생의 관복과 같다.

3) 세종조 회례연 등가 · 헌가 및 시용 회례연 헌가의 관복

(1) 세종조 회례연 등가

악생(62인) 및 도창(導唱)의 관복과 헌가 악공 139인의 관복은 시용아악의 등가의 관복과 같다.

(2) 세종조 회례연 헌가

① 문무 악생(50인, 득 黻 2인 포함)의 관복

진현관(進賢冠) · 청란삼(靑鸞衫) (시용 즉 성종 때는 검은 명주 옷[白紬衣]) · 백주중단

(白紬中單)·백주군(白紬裙)·금동혁대(金銅革帶)·백포말(白布襪)·오피리(烏皮履).

세종조 회례연에 아악을 사용할 때의 문무인(文舞人) 관복과 시용(時用) 문무인의 관복도 이와 같다.

② 무무 악생(58인) 중 무(舞) 48, 정(旌) 2인의 관복

피번(皮弁)·비란삼(緋鸞衫)·황화갑(黃畫甲)·표문대구고(豹文大口袴)·기량대(起梁帶)·백포말(白布襪)·오피리(烏皮履).

③ 순(鎗)·탁(鑼)·요(鏡)·탁(鐸)·응(應)·아(雅)·상(相)·독(牘)을 드는 공인의 관복  
무번(武弁)·홍말액(紅抹額)·비란삼(緋鸞衫)·백주중단(白紬中單)·백주고(白紬袴)·백포말(白布襪)·홍금비구(紅錦臂鞲)·금동혁대(金銅革帶)·오피리(烏皮履).

세종조 회례연에 아악을 쓸 때의 무무인(武舞人)의 관복도 이와 같다.

(3) 시용(성종조) 회례연 헌가의 관복

① 무무(武舞, 48인)·정(旌, 2인)의 관복

비번(皮弁)·조주의(皂紬衣)·백주중단(白紬中單)·백주군(白紬裙)·금동혁대(金銅革帶)·백포말(白布襪)·오피리(烏皮履).

② 순(鎗)·탁(鑼)·요(鏡)·탁(鐸)·응(應)·아(雅)·상(相)·독(牘)을 드는 공인의 관복  
「오례의」의 관복과 같다.

## 2. 《악학궤범》 속악진설도설(俗樂陳設圖說)의 관복<sup>(24)</sup>

다음에는 「악학궤범」 권 2에 소개된 관복을 알아 보기로 한다.

1) 「오례의」 종묘와 영령전 등가·헌가의 관복

(1) 「오례의」 종묘와 영령전의 등가

① 악사

복두(幞頭)·녹초삼(綠綃衫)·오정대(烏鞆帶)·흑피화(黑皮靴)

② 악공(樂工, 36인)

개적(介幘)·비란삼(緋鸞衫)·백주중단(白紬中單)·백초대(白綃帶)·백포말(白布襪)·오피리(烏皮履).

(2) 「오례의」 종묘와 영령전의 헌가

악공(樂工) 72인의 관복은 「오례의」 종묘·영령전의 등가의 관복과 같다.

2) 시용(성종조) 종묘·영령전의 등가·헌가의 관복

시용 종묘·영령전의 악공수는 「오례의」 종묘·영령전의 악공수와 같고, 그 관복도 「오

(24) 《樂學軌範》 卷 2, 5a~15b.

례의]의 관복과 같다.

3) 보태평(保太平)과 정대업(定大業)의 관복

(1) 보태평지무(保太平之舞)

악공 38인 중 무(舞) 36인, 독(籥) 2인으로 관복은 다음과 같다.

진현관(進賢冠)·남주의(藍紬衣)·적상(赤裳：皂緣)·적말대(赤抹帶)·백포말(白布襪)·

오피리(烏皮履).

(2) 정대업지무(定大業之舞)

악공 71인 중 무(舞) 36인, 의물(儀物)을 든 공인이 35인이다.

관(冠)만 피변(皮弁)이고 복식은 보태평지무와 같다.

4) 문소전(文昭殿) 친행(親行) 전상악(殿上樂)과 전정악(殿庭樂)의 관복

(1) 친행 전상악

① 악사

복두(僕頭)·녹초삼(綠綃衫)·오정대(烏鞞帶)·흑피화(黑皮靴)

② 악공(39인)

오관(烏冠)·홍말액(紅抹額)·수화(首花)·목단홍배(牧丹胸背)·홍록주삼(紅綜紬衫).

(2) 친행 전정악

악사 1인, 악공 61인으로 관복은 친행 전상악의 관복과 같다.

연은전(延恩殿)·소경전(昭敬殿)의 관복도 이와 같다.

5) 문소전(文昭殿) 섭행(攝行) 전상악과 전정악의 관복

(1) 섭행 전상악

악사 1인, 악공 22인이며, 관복은 친행(親行)의 경우와 같다.

(2) 섭행 전정악

악공은 28인이며, 관복은 친행의 예와 같다.

연은전(延恩殿)과 소경전(昭敬殿)은 악공수만 다르고, 관복은 문소전의 예와 같다.

6) 독제(籥祭)의 관복

악생(23인)

① 금고기(金鼓旗) 13인

갑주(甲冑)

② 간척(干戚) 4인

주(冑)·청방의(靑防衣)

③ 궁시(弓矢) 4인

주(冑) · 홍방의(紅防衣)

④ 창검(槍劍) 각 1인

주(冑) <창검은 전대(纏帶)를 하지 않음>

⑤ 무(舞) 10인

백저포 전대(白苧布 纏帶) · 회렴(回斂) · 운혜(雲鞋)

7) 시용 전정(殿庭) 헌가

① 악사(2인)

복두(幞頭) · 녹초삼(綠綃衫) · 오정대(烏鞞帶) · 흑피화(黑皮靴).

② 악공(59인)

화화복두(畫花幞頭) · 소화홍배(小花胸背) · 홍주삼(紅紬衫) · 오정대(烏鞞帶).

8) 시용 전정고취(殿庭鼓吹) · 전후고취(殿後鼓吹)의 관복

(1) 전정고취

① 악사(2인)

복두(幞頭) · 녹초삼(綠綃衫) · 오정대(烏鞞帶) · 흑피화(黑皮靴).

악사 1인은 관복을 하고 집박(執拍) 1인은 시복(時服)을 입는다.

② 악공(50인)

화화복두(畫花幞頭) · 소화홍배(小花胸背) · 홍주삼(紅紬衫) · 오정대(烏鞞帶)

(2) 전후고취

① 악사

복두(幞頭) · 녹초삼(綠綃衫) · 오정대(烏鞞帶) · 흑피화(黑皮靴).

② 악공(18인)

화화복두(畫花幞頭) · 소화홍배(小花胸背) · 홍주삼(紅紬衫) · 오정대(烏鞞帶)

9) 전부고취와 후부고취의 관복

(1) 전부고취

① 악사(1인)

복두(幞頭) · 녹초삼(綠綃衫) · 오정대(烏鞞帶) · 흑피화(黑皮靴).

② 악공(50인)

화화복두(畫花幞頭) · 소화홍배(小花胸背) · 홍주삼(紅紬衫) · 오정대(烏鞞帶).

(2) 후부고취

① 악사(1인)

복두(幞頭) · 녹초삼(綠綃衫) · 오정대(烏靸帶) · 흑피화(黑皮靴)

② 악공(50인)

화화복두(畫花幞頭) · 소화흉배(小花胸背) · 홍주삼(紅紬衫) · 오정대(烏靸帶).

10) 정전(正殿) 예연(禮宴)의 악사 · 여기 · 악공의 관복

① 악사(3인 중 1인, 연향절차 지휘)

사모(紗帽) · 품대(品帶) · 흑단령(黑團領)

② 악사(3인 중 2인, 정재집박 및 고취집박)

복두(幞頭) · 녹초삼(綠綃衫) · 오정대(烏靸帶) · 흑피화(黑皮靴).

\* 사신 동궁연 이하 각연(各宴)의 악사

사모(紗帽) · 품대(品帶) · 흑단령(黑團領)

\* 사악(賜樂) · 예조 각인연(各人宴)의 악사

모두 상복(常服)임.

③ 여기(女妓, 100인)

단장(丹粧) · 수화(首花) · 칠보잠(七寶簪) · 금차(金釵) · 보로(甫老) · 홍대(紅帶) · 백말군(白抹裙) · 단혜아(段鞋兒).

년소기(年少妓) : 금차(金釵)는 쓰지 않고, 칠보대요(七寶臺腰) · 자흑초 수사지(紫黑綃首沙只)를 더함.

\* 곡연(曲宴) · 무과 전시(武科殿試) · 관사(觀射) · 관나(觀儼) · 사신 · 동궁연 이하 각연(各宴) · 주봉배유관(晝奉盃遊觀) · 사악(賜樂) · 예조 후대 왜연(禮曲厚待倭宴)의 여기

흑장삼(黑長衫) · 남적고리(藍赤古里) · 칠보잠(七寶簪) · 금차(金釵) · 홍대(紅帶) · 백말군(白抹裙) · 단혜아(段鞋兒).

년소기 : 금차(金釵) · 홍대(紅帶)는 안고, 칠보대요(七寶臺腰) · 수사지(首沙只) · 남단대(藍段帶)를 더함.

\* 예조 왜야인연(倭野人宴)의 여기

상복(常服)

④ 악공 60인

화화복두(畫花幞頭) · 소화흉배(小花胸背) · 홍주삼(紅紬衫) · 오정대(烏靸帶).

\* 어전(御前) 악공관복 : 같음

\* 사신·동궁연·예조 이하 각연(各宴)악공관복:녹주 두건(綠紬頭巾)·흑단령(黑團領)

\* 사악(賜樂)·예조 왜야인연(倭野人宴)악공관복:녹주두건(綠紬頭巾)·토홍단령(土紅團領)

11) 진풍정(進豊呈)·중궁 예연(中宮禮宴)의 여기·관현맹인의 관복

① 고취 정재·산선기(繖扇妓):단장잡식(舟粧雜飾)

② 의장기(儀仗妓):흑장삼(黑長衫)·잡식(雜飾)

③ 맹인(盲人):녹주두건(綠紬頭巾)·압두록 목면 단령(鴨頭綠木綿 團領)·두석 호정대(豆錫紅鞞帶)

12) 후원 증친 진연(後苑宗親進宴)·사정전(思政殿) 왜야인 접견(倭野人接見)

① 악사:사모(紗帽)·품대(品帶)·흑단령(黑團領)

② 절차지휘·집박:공복(公服)

13) 학연화대처용무합설(鶴蓮花臺處容舞合設)〈창경궁〉

① 무학(舞鶴) 2인:청(靑)은 청상(靑裳)·녹족(綠足)·녹치(綠髻), 백(白)은 홍상(紅裳)·홍족(紅足)·청치(靑髻)

② 처용 5인

가면(假面)·화화오색사모(畫花五色紗帽)〈插牧舟花 桃實枝〉·단의(段衣)·홍정대(紅鞞帶)·백주한삼(白紬汗衫)·백포말(白布襪)·백피혜(白皮鞋).

③ 무동 10인

가면·동연화관(銅蓮花冠)·각색 단의(各色段衣)·흑연 백초중단(黑緣 白綃中單)·흑연 홍단상(黑緣紅段裳)·두석 녹정대(豆錫綠鞞臺)·화아흑단화(花兒黑單化).

④ 연화대 동녀 2인

우엽 황홍장미(羽葉黃紅薔薇)·수화(首花)·홍라단장(紅羅舟粧)·홍초말군(紅綃抹裙)·홍초보로(紅綃甫老)·홍초대(紅綃臺)·홍초 수사지(紅綃首沙只)·홍초말액(紅綃抹額)·쌍수남단합립(雙垂藍段蛤笠)〈印金花紋, 입(笠) 좌우에 金鈴을 단다〉·단혜아(段鞋兒).

14) 후원(後苑) 문무신(文武臣) 관사(觀射)

① 가동(歌童)

자주두건(紫紬頭巾)·녹주단령(綠紬團領)·대홍진사 광다희(大紅眞絲廣多繪)·오피화(烏皮靴)

악공 관복과 같음

15) 강무(講武) 및 행행(行幸)

① 악사·악공

용복(戎服)

② 가동(歌童)

주황 초립(朱黃草笠)(插羽)·토홍 면포 단첩리(土紅綿布單帖裏)·오피화(烏皮靴)

16) 정전(正殿) 연향(宴享) 때 정재(呈才) 악공(樂工)

권착 사모(紗帽)·각대(角帶)·흑단령(黑團領).

17) 친경 직전(親耕籍田)

① 악사 3인으로 모두 공복(公服)

② 악공 100인 모두 관복(冠服)

18) 대사례(大射禮)

① 악사(3인 중 1인)

사모(紗帽)·각대(角帶)·흑단령(黑團領)

② 악사(3인 중 2인)

공복(公服)

19) 친잠 고취(親蠶鼓吹)

① 차비 기녀 51인

단장 잡식(舟粧雜飾)

② 의장 여기 74인

산선 차비(撒扇差備, 6인) : 단장잡식, 나머지는 모두 흑장삼(黑長衫)·잡식(雜飾)

20) 개성부(開城府) 천사 영명(天使迎命)과 연향

① 전악(典樂)

영명(迎命)때 : 공복(公服)

연향 때 : 사모(紗帽)·흑단령(黑團領)·각대(角帶)

② 악공 7인

영명(迎命) 때 : 복두(幞頭)·호주삼(紅袖衫)·오정대(烏鞞帶).

연향 때 : 녹주두건(綠袖頭巾)·흑단령(黑團領)

③ 여기 10인 : 흑장삼(黑長衫)·잡식(雜飾).

이상과 같이 《악학궤범》 권 9의 관복도설(冠服圖說)은 우방 악사(右坊樂師)·악공(樂工)

·도창악사(導唱樂師)·아속악(雅俗樂)의 차비(差備)·가동(歌童)·의물을 드는 공인·문

무와 무무의 공인의 관복은 세종 회례연에 아악을 쓸 때 무무의 공인이 소착(所着)하던 관복이고, 처용관복(處容冠服)은 처용무에 쓰이는 관복이고, 무동관복(舞童冠服)은 회례연과 공연(公宴)의 무동(舞童)·독제(蠶祭) 소용의 관복이고, 여기복식(女妓服飾)은 너무 간략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권 9의 도설(圖說)이 악공·무동(舞童)·여기(女妓) 등으로 대별하고, 음악이나, 춤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설명되지 않은 이유는 《악학궤범》 권 2에 소개된 각종 관복을 종합적으로 그 제도를 중심으로 설명하였기 때문이다.

즉, 《악학궤범》 권 2에는 아악진설도설(雅樂陳說圖說)과 속악진설도설(俗樂陳說圖說)에 의하면 세종 때와 성종 때의 등가(登歌)·軒架의 악인(樂人), 독제(蠶祭)의 악인, 정전(正殿) 예연(禮宴)의 여기(女妓)와 악공(樂工) 및 년소기(年少妓), 진풍정(進豊呈)과 중궁예연(中宮禮宴)의 여기·관현맹인(管絃盲人), 처용무 등이 착용하는 관복을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예시(例示)하고 있다. 따라서, 《악학궤범》 권 2에 전하는 복식은 순조 무자년(1828) 이후의 각종 정재(呈才)의 복식과 비교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 V. 각종 《진연의궤》의 복식(服飾)

조선 중기 이후로는 많은 《진연의궤》가 전한다.

이 종류의 책에는 《풍정의궤(豊呈儀軌)》·《진연의궤(進宴儀軌)》·《진찬의궤(進饌儀軌)》·《진작의궤(進爵儀軌)》 등 각각 다른 이름으로 된 것이 있으나, 그 내용은 동질적인 것이다.

이러한 의궤(儀軌) 가운데에는 음악은 물론, 정재(呈才)에 관한 설명·치어(致語)·창사(唱詞) 및 복식에 관한 것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이 중에서 오직 정재(呈才)의 복식에 한하여 정리하려 한다.

이 정재(呈才)가 연출될 때는 악사·전악(典樂)·악공(樂工)·의물(儀物)을 드는 사람·여기(女妓)·무동(舞童) 등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복식도 악사·전악·악공 및 의물을 드는 기녀·여기·무동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 1. 악인(樂人)의 복식

	순조무자(1828) 진작의궤	순조기축(1829) 진찬의궤	현종무신(1848) 진찬의궤	고종정축(1877) 진찬의궤
집사 악사			사모(紗帽)·유양흑단령(有揚黑團領)·수품	사모·유양흑단령·수품대·흑화



			대(隨品帶) · 흑화(黑靴) <헨가> 모라복두 · 녹초삼 · 은야대 · 흑화 <등가>	<등가 · 헨가>
집 박 악 사 및 전 악	당건(唐巾) · 자라포(紫羅袍) · 황질 흑선중단의(黃質黑線中單衣) · 은야대(銀也帶) · 흑화(黑靴)	복두(幘頭) · 녹초삼(綠綃衫) · 오정대(烏鞆帶) · 흑화	모라복두(帽羅幘頭) · 녹초단삼(綠綃單衫) · 야대(也帶) · 흑화 <등가 · 헨가> 사모 · 무양흑단령 · 오각대(烏角帶) · 흑화 <등가 권착전악>	모라복두 · 녹초단삼 · 야대 · 흑화
악 공	죽화복두(簇花幘頭) · 녹나포(綠羅袍) · 남질 흑선중단의(藍質黑線中單衣) · 금동야대(金銅也帶) · 흑화	화화복두(畫花幘頭) · 홍주의(紅周衣) · 오정대(烏鞆帶)	화화복두 · 홍주의 · 오정대 <헨가> 화화사모(畫花紗帽) · 남주의(藍袖衣) · 홍주의(紅袖衣) · 야대 · 흑화 <등가>	현종무신년 복식과 같음. 현종 무신년 복식과 같음.
가 자 (歌者)	자적두건(紫的頭巾) · 녹단령(綠團領) · 자적광대(紫的廣帶) · 흑화	자적두건 · 녹색단령 · 자적광대 · 흑화		

## 2. 정재 여령(女伶)의 복식

순조 기축(1829) 《진찬의궤》 권 3에 의하면, 정재에 있어서의 여령(女伶) 및 의장(儀仗)을 드는 여령 복식은 모두 같다 하였고, 연화대(蓮花臺) 동기(童妓) · 선유락(船遊樂) 집사여령(執事女伶) · 걸기무 여령 · 춘앵전 여령 · 무고 여령 · 처용무 여령 및 거휘여령(擧麾女伶) 등 조금씩 다른 복식에 한하여 따로 설명하고 있다.

순조 기축(1829) 《진찬의궤》 · 현종무신(1848) 《진찬의궤》 · 고종 무진(戊辰)(1868) 《진찬의궤》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순조기축(1829) 진찬의궤	현종무신(1848) 진찬의궤	고종무진(1868) 진찬의궤	고종정축(1877) 진찬의궤
의장여 령(儀仗 女伶)	화관(花冠) · 초록단의(草綠丹依) · 황초단삼(黃綃丹衫) · 길은 홍초삼(紅綃裳) · 홍단금루수대(紅緞鑲繡帶) · 오색한삼 · 초록혜(草綠鞋)			

거취여령(擧毫女伶)	가리마(加里麻)·초록단의·속은 남상(藍裳)·겉은 황초상(黃綃裳)·황혜(黃鞋)	화관·초록단의·황초단삼·속은 남색상·겉은 홍초상·홍단금루수대·오색한삼·초록혜.		현종 무신년 복식과 같음.
정재여령	화관·황초단·삼속은 남색상·겉은 홍초상·홍단금루수대·오색한삼·초록혜.	화관·황초단삼·속은 남색상·겉은 홍초상·홍단금루수대·오색한삼·초록혜	화관·황초단삼·속은 남색상·겉은 홍초상·홍단금루수대·오색한삼·흑혜	고종·무진년과 같음.
연화대경계동기(童妓)	합림(蛤笠)(銅鈴·流蘇·황홍장미를 씌)·초록단의·홍초말군(紅綃蔑裙)·홍라상(紅羅裳)·금화홍라대(金花紅羅帶)·백한삼(白汗衫)·진홍단혜(眞紅緞鞋)			순조 기축년과 같고, 백한삼 대신 오색한삼을 씌.
치용무	5방무 사모(紗帽)·청·홍·황·흑·백의 단의(丹衣)·홍록흉배(紅綠胸背)·초록천의(草綠天衣)·홍초길경(紅綃吉慶)·남말군(藍蔑裙)·홍방술(紅方膝)·황초상(黃綃裳)·금동력대(金銅革帶)·백한삼(白汗衫)·백피혜(白皮鞋)	순조 기축년과 같으며 백피혜(白皮鞋) 대신 흑화(黑靴)를 씌.		

	순조 기축(1829) 진찬의궤	현종 무신(1848) 진찬의궤	고종 정축(1877) 진찬의궤
무고	4인무 화관·청·적·홍·초록 단삼(丹衫)·속은 남색상(藍色裳)·겉은 홍초상(紅綃裳)·홍단금루수대·오색한삼(五彩汗衫)·초록혜(草綠鞋)	순조 기축년과 같고, 다만 청·적·홍·초록 단삼 대신 청·홍·흑·백의 쾌자(褂子)로 바꾸고, 사방색(四方色)에 맞추고 있다.	고종 정축년 《진작의궤》에는 원무(元舞) 4인이 자적갑사괘자(紫的甲紗褂子)에 남전대(藍戰帶)를 띠는 점이 다르고, 동년 《진작의궤》에는 청·적·백·유록(柳綠)의 쾌자로 바꾼 점이 다르다.
검기무	전립(戰笠)·홍초상(紅綃裳)·아청갑사괘자(雅靑甲紗褂子)·남전대(藍戰帶)·초록혜	순조 기축년 복식과 같음.	전립·금향협주(金香挾袖)·자적갑사괘자·남전대 검기무 동기(童妓): 순조 기축년 복식과 같음.

선유락	주립(朱笠: 虎髮·孔雀羽·蜜花貝纓으로 장식함)·남사천익(藍絲天翼)·진홍성성년광대(眞紅猩猩氈廣帶)·통개(簾筒)·검(劍)·붉은 칠한 등편(藤鞭)·흑단수화(黑緞水靴)	순조 기축년의 복식과 같으나, 공작우가 빠져 있음.	죽녹립(竹綠笠: 甲紗纓을 담)·남사천익·진홍광대·통기·검(劍)·주칠등편(朱漆藤鞭)·흑단수화(黑緞水靴) 〈고종 병진 진작의례〉 고종 병진(1868)의 갑사영이 밀 화폐영으로 바뀌었을 뿐, 그 복식은 같음. 〈고종 정축 진찬의례〉
춘앵진	화관·황초삼·홍초삼·초록하파(草綠霞波)·홍단금무수대·오색한삼·홍금수구(紅錦繡鞵: 臂鞵)·초록혜	순조 기축년의 복식과 같음	순조 기축년의 복식과 같으나, 황초삼을 황초단삼(黃絛單衫)으로 한 점이 다름. 동기(童妓)는 순조 기축년의 복식과 같음.
가인전목단	화관·초록단의·황초단삼·속은 남색상·겉은 홍초삼·홍단금무수대·오색한삼·초록혜	순조 기축년과 비교하면, 초록단의가 빠져 있고, 오색한삼 대신 백한삼을 씀.	순조 기축년의 복식과 같고, 옥색한삼(玉色汗衫)을 쓴 점이 다름.

이상 도표에서 비교한 춤 이외의 춤 복식은 순조 기축(1829)《진찬의례》, 헌종 무신(1848)《진찬의례》, 고종 무진(1868)《진작의례》 등의 여령 복식(女伶服飾)에 준하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 3. 무동 복식

순조 무자(1828)《진작의례》와 순조 기축(1829)《진찬의례》에 의하여 무동 복식(舞童服飾)을 살펴 보겠는데, 무동은 남자의 춤이라서 그 복식이 여령(女伶)이나 동기(童妓) 복식과 전혀 다르다. 당악 정재·향악 정재의 순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 1) 당악 정재

##### ① 연화대

연화합립(蓮花蛤笠)·금주모(金珠帽)·녹라포(綠羅袍)·백질흑선중단의(白質黑縵中單衣)·호질남선상(紅質藍縵裳)·학정대(鶴頂帶)·비두리(飛頭履).

##### ② 연백복지무

원무(元舞): 각건(角巾)·홍포(紅袍)·백질흑선중단의·남야대(藍也帶)·흑화(黑靴).  
선모(仙母)와 죽간자(竹竿子): 복두(撲頭)·남포(藍袍)·백질흑선중단의·홍야대(紅也帶)·흑화.

##### ③ 장생보연지무

아광모(訝光帽 또는 각건(角巾))·홍라포(紅羅袍)·백질흑선중단의·남질흑선상(藍質黑

縵裳)·녹한삼(綠汗衫)·주진대(珠鈿帶 또는 藍也帶)·무우리(無憂履 또는 黑靴).

④ 최화무

아광모·홍라포·백질흑선중단의·남질흑선상·주진대·흑화(춘광호와 같음).

그러나, 때로는 가인전목단의 복식과 같이 하기도 한다.

2) 향악 정재

① 무 고

아광모·홍라포·백질남선중단의(白質藍縵中單衣)·남질흑선상·녹한삼·학정대·흑화.

② 아 박

무고의 복식과 같다.

순조 기축 명전전 진찬 때의 복식은 무고 복식과 같고, 홍질남선상·흑색단령에 화화방보(畫花方補)하고, 중단의(中單衣)·관대(冠帶)·화자(靴子)는 초무(初舞)와 같다.

③ 무애무

가인전목단의 복식과 같다.

④ 향발무

무고 복식과 같다.

그러나, 순조 기축 명정전 무동은 부용관(芙蓉冠)·홍파포·백질흑선중단의·남선상·녹색단령·화화방보(畫花方補)·두석녹정대(豆錫綠鞵帶)·흑화로 되어 있다.

⑤ 초 무

부용관·백질흑선중단의·남선상·녹색단령·화화방보·두석녹정대·흑화.

⑥ 광수무

부용관·백질흑선중단의·홍질남선상·녹색단령·화화방보·두석녹정대·흑화.

⑦ 첩수무

광수무의 복식과 같다.

⑧ 공막무

고운계(高雲髻)·석죽화(石竹花) 그린 전복(戰服)·은속대(銀束帶)·호화(胡靴).

⑨ 망선문

봉작선 무동(奉雀扇舞童) : 주취금관(珠翠金冠)·화금포(花錦袍)·남질흑선중단의(藍質黑縵中單衣)·남질흑선상(藍質黑縵裳)·자사대(紫紗帶)·백우호령(白羽護領)·백우엄요(白羽掩腰)·보대(寶帶)·무우리(無憂履).

집당 무동(執幢舞童) : 주취금관·자라포(紫羅袍)·백질흑선중단의·남질흑선상·남사대

· 백우호령 · 백우업요 · 학정대 · 비두리(飛頭履).

⑩ 경풍도

주취금관 · 화면포 · 백질흑선중단의 · 남질흑선상 · 자사대(紫紗帶) · 백우호령 · 백우업요 · 보대 · 무우리.

⑪ 만수무

무동 복식은 경풍도와 같다.

봉선도반 무동(奉仙桃盤舞童) · 봉족자무동(奉簇子舞童) : 화면포(花錦袍) 대신 자라포(紫羅袍), 자사대(紫紗帶) 대신 남사대(藍紗帶)를 쓰고 나머지는 경풍도와 같다.

⑫ 헌천화

주취금관 · 자라포 · 백질흑선중단의 · 남질홍선상 · 남사대 · 백우호령 · 백우업요 · 학정대 · 비두리

⑬ 춘대옥촉

헌천화 무동 복식과 같다.

⑭ 보상무

아광모 · 벽라포(碧羅袍) · 백질흑선중단의 · 홍질남선상 · 학정대 · 무우리.

⑮ 영지무

보상무의 복식과 같다.

⑯ 향령무

아광모 · 녹라포 · 백질흑선중단의 · 홍질흑선상 · 학정대 · 무우리.

⑰ 박접무

아광모 · 녹라화접포(綠羅花蝶袍) · 백질흑선중단의 · 흑질남선상 · 주전대 · 무우리.

⑱ 침향춘

아광모 · 녹라포 · 백질흑선중단의 · 홍질남선상 · 주전대 · 흑화.

⑲ 춘앵전

아견모(砒絹帽) · 백질흑선천수의(白質黑縵穿袖衣) · 옥색질흑선상(玉色質黑縵裳) · 녹사괘자(綠紗掛子) · 홍한삼 · 오사대(烏紗帶) · 호화(胡靴).

⑳ 춘광호

아광모 · 홍라포 · 백질흑선중단의 · 남질흑선상 · 주전대 · 흑화.

㉑ 칩승무

춘광호 복식과 같다.

㉔ 가인전목단

아광모 · 홍라포 · 백질흑선중단의 · 남질흑선상 · 녹한삼 · 주전대 · 무우리.

또는 각진(角巾) · 홍포(紅袍) · 백질흑선중단의 · 남아대 · 흑화.

㉕ 무산향

아광모 · 남사내공(藍紗內拱) · 홍라친주의(紅羅穿袖衣) · 금가자(金訶子) · 백질흑선상 · 녹라괘자(綠羅掛子) · 녹사한삼(綠紗汗衫) · 학정야대(鶴頂也帶) · 능파리(凌波履).

㉖ 고구려무

금화첨립(金花添笠) · 회색괘자(灰色掛子) · 남천익(藍天翼) · 홍광대(紅廣帶) · 오혜(烏鞋)

㉗ 사선무

아광모 · 홍라포 · 백질흑선중단의 · 남질흑선상 · 녹한삼 · 학정대 · 흑화.

㉘ 학 무

《악학궤범》 시절에는 청학(靑鶴)과 백학(白鶴)이나, 조선 후기의 학무는 황학(黃鶴)으로 되어 있고 청고말(靑袴襪) · 황고말(黃袴襪)로 바뀌고, 그밖의 빛깔도 청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 VI. 맺 는 말

위의 많은 복식 가운데서 특히 주목되는 점을 요약하면 대강 다음과 같다.

1. 처용무는 《악학궤범》 이후 탈과 복식에 있어서 변함없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처용무는 조선 전기에 12월晦日(晦日)에 궁중에서 거행되던 나례의식(儼禮儀式)에서(前度)와 후도(後度)로 나뉘어 두 번 연출되었다.

조선 중기 이후 후기까지 전승된 처용무는 그 후도(後度)에 속한다.<sup>(25)</sup>

2. 고려 때부터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춤은 당악 정재인 포구락과 향악 정재인 무고 두 가지인데, 《고려사》악지에는 무대(舞隊)는 검은 장삼(阜衫), 기(妓)는 단장(丹粧)이라 했을 뿐이므로 그 복식을 구체적으로 거론(擧論)할 수 없고, 또 《악학궤범》 권2 정전에연(正殿禮宴)조<sup>(26)</sup>와 등 권9 여기 복식조<sup>(27)</sup>에는 여기 복식으로 일괄해서 소개되어 있는 관계

(25) 高宗 무렵의 各《呈才舞圖笏記》의 處容舞譜에 『五方處容 搖身歡舞 還復初別而立 樂止 繫拍樂作 二妓導唱 如前回旋 至本師觀音讚 諸妓各聲和 並如上導唱和之』에서 立證된다.

(26) 樂學軌範 卷 2, 13a~15b.

(27) 樂學軌範 卷 9, 18a~20b.

로 무슨 춤에 어떠한 복식을 하였지 분간할 수 없다.

3. 무고는 《악학궤범》에 의하면 팔고(八鼓)나 사고(四鼓)일 때는 춤추는 사람도 복수와 같이 하고, 두 사람이 추 때는 북 하나만을 쓴다 하였는데, 팔고(八鼓)를 쓸 때는 북 2개씩 넷으로 나누어 청(靑:東)·홍(紅:南)·백(白:西)·흑(黑:北)의 사방색(四方色)에 따라 북(鼓面)의 빛깔을 달리했다.<sup>(28)</sup>

그러나 조선 후기인 순조 기축(1829) 《진찬의궤》에는 청(靑)·적(赤)·홍(紅)·초록(草綠) 단삼(丹衫)으로 네방위 빛깔과는 다르고, 헌종 무신(1848) 《진찬의궤》에는 청·홍·흑·백의 패자[掛子]로 사방색(四方色)을 상징하였고, 고종 정축(1877) 《진찬의궤》에서는 다시 청·적·백·유록(柳綠)의 패자[掛子]로 바뀌었다.

검은 빛깔(黑:北)의 어두운 빛깔대신 밝은 유록(柳綠)으로 바꾼 것 같다. 그 뒤 최근에 이르기까지 무고 복식은 단일화된 복식으로 전승되었다.

4. 검기무는 조선 중기 이후의 각종 《진찬의궤》에 보이고, 춘앵전은 순조 무자년(1828)에 창작된 정재로서 현재까지 복식의 변화가 없는 정재에 든다.

5. 그 밖의 조선 말기의 모든 정재의 복식은 때와 장소에 따라 호화롭고 다양한 변화를 주었음을 알 수 있다.

6. 이상과 같이 다양하던 조선 말기의 복식이 현재와 같이 천편일률적으로 획일화 된 이유는 일정 36년의 어려운 시대에 전통의 명맥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었던만큼 정신적·경제적인 여유를 갖지 못한 까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7. 그러나, 1945년 나라를 되찾은 뒤 40년이 된 이마당, 아직도 오랜 전통 밑에서 면면(綿綿)히 이어 온 정재의 구성이나 복식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현실이다.

여기에는 경제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하겠지마는 그보다도 고전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에 몸을 바치는 학자가 부족하고, 따라서 각급 대학교의 무용학과 또는 동 대학원의 칼리큘럼이 무용 이론 정립을 위한 학문적인 방향 설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 기인(起因)한다고 하겠다.

8. 이러한 현실은 각대학 무용과의 전공은 거의 고전 무용(한국 무용)·현대 무용(서양 무용)·발레로 나뉘어져 있고, 이론 전공이 따로 있는 학과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도 짐작되는 바 있다.

(28) 八鼓四鼓 則妓數如其鼓數 用二妓則共擊一鼓<樂學軌範 卷 5, 10b>.

凡八鼓 每鼓面 用靑紅白黑色 畫圓光爲四方之鼓…<樂學軌範 卷 8, 12ab>.